

# 현대 차문화 공간을 위한 차실(茶室)가구 연구<sup>1</sup>

-한국의 조형미를 담은 차실가구 개발-

문선옥<sup>2</sup> · 박민철<sup>†3</sup>

## Study on Tea Furniture for Contemporary Tea Cultural Space<sup>1</sup>

- Development of Tea Furniture with Beauty of Korean Formation -

Sun-Ok Moon<sup>2</sup> · Min-Cheol Park<sup>†3</sup>

###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tea furniture with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As the population which drinks tea increases day by day in the light of 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era, the importance of the tea culture has been brought out and the interest of the pieces has increased with the cultural space. But the study is still not only insufficient for Korean tea cultural space, it is but also hard for us to find such pieces as holding the original culture's charm. Thus, after studying concepts and spatial qualities of the tea cultural space based o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after investigating the tea objects including the integral parts, a piece of tea shelf with table which hits the emotion of Korea necessary to tea cultural space was created with solid wood. As a result, if we rediscover and develop the tea pieces with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mentioned as the green furniture, the objects will be standing on tiptoe as contemporary tea pieces conveying the identity of Korea. In addition, they will have a competitiveness across the world pursuing LOHAS beyond well-being.

**Keywords:** Tea furniture, tea cultural space, traditional Korean furniture.

### 1. 서 론

오늘날 웰빙을 넘어서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를 외치며 자연친화적인 문화를 중요시하면서, 차를 마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차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차(茶)문화가 행해지는 공간에서의 차실가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논문접수: 2009. 3. 29.; 심사: 2009. 05. 01.; 투고확정: 2009. 07. 17.

2. 경상대학교 환경산림과학부, Division of Environmental Forest Science/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NU, Jinju 660-701, Korea.

3. 경상대학교 대학원 임산공학과 석사과정. The Graduate School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Corresponding author: Min-Cheol Park (E-mail: atelier\_hon@naver.com)

아직 우리 문화의 독창적인 멋을 가진 차실가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 차문화공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차실가구를 한국 전통목가구의 아름다움에서 착안하여 한국의 조형미를 담은 차실가구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린 스타일(Green Style)의 대표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차문화공간 속 차실가구에 담긴 가치를 재발견하여 찻자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차실가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차문화공간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중국·일본을 위주로 차문화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구성요소 (내·외부공간, 가장집기) 중 하나인 차문화공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차실가구를 분류하였다. 고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차문화는 적어도 1,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차문화 공간은 단지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린 스타일의 대표적인 공간이며 개인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여가의 공간이고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 문화와 화합하여 복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문화 공간은 자연친화적 공간 미학을 담고 있으며 정신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철학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김 2006). 이러한 오랜 차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로써 그 체계가 세워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독창적인 차실가구에 대한 파악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 기초연구로 중국의 『다경(茶經)』에 나타나는 차의 기원과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의 고문헌의 기록에 근거하여 차의 기원, 차문화의 발생과 현대의 차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 미의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차문화공간 속의 차실가구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형미를 담은 찻상과 차도구 선반을 개발하였다. 개발사례는 차실가구의 기초 디자인과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를 이용한 설계과정, 모델제작 과정을 첨부하여 가구 제작의 기법과 재료, 구조적인 면을 이미지와 함께 설명하였다.

## 2. 차문화의 의미와 현대의 차문화공간

### 2-1 고대 문헌으로 본 차의 기원

당(唐)나라의 육유(陸羽:727?~808?)가 지은 『다경』의 ‘차의 옛 일’ 편에는 한(漢)나라 이전에 차를 마신 고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들은 인용된 책의 성립연대나 차를 가리키는 글자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되어 현재 가장 믿을만한 것은 전한(前漢)의 선제(宣帝) 때 왕포(王褒)라는 선비가 만든 노예매매 계약서인 『동약(僮約)』(BC 59)이다. 이 계약서에는 양혜(楊惠)라는 과부의 전남편이 거느리던 편료(便了)라는 남종을 왕포가 1만 5000냥에 사온 뒤 편료가 할 일이 적혀 있는데, 무양(武陽)에 가서 차를 사오는 일과 손님이 오면 차를 달여서 대접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차 마시는 풍습이 전한시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차 마시기의 기원으로 본다고 두산백과사전에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기원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본기 흥덕왕 12월조(新羅本紀 興德王 12月條)’에 보면, 우리민족은 약 1400년에 이르는 음다(飲茶)의 역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기록들이 나온다. 3년(828) 12월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대령이 차종자를 가져오자 왕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으며,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선덕여왕(632~647)때에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으며, 지리산이 차의 생육에

있어 최적지임을 인지할 정도로 차 재배 방면에서도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 Literature of the tea.

또한 『삼국유사』에 보면, 가락국 수로왕의 왕후인 허황옥(虛黃玉)이 천축에서 차씨를 가져와 심었다는 설이 있다. 전설이긴 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차를 마셨으리라는 추측이 된다. 가락에서는 명절 때나, 제사에 차와 과자를 올려놓았다고 한다(윤 2004). 이러한 고문헌으로 나타나는 차문화는 고조선 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불가(佛家)로 이어지고, 특히 신라시대 화랑의 심신 수련과정에 접목이 되었으며, 이후 고려, 조선을 거쳐 궁궐과 사찰에 주로 보급되어졌고 현대에 와서는 계층이나 특수성을 가진 장소를 탈피하고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천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는 생활의 예절이 되었고 사색을 즐기는 성품과 풍류의 멋을 가져다주면서 우리 문화에 한 축으로 존재하게 되어 고급생활문화로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차의 기원과 차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차문화가 천여 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면서 현대에는 어떻게 발전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2-2 현대의 차문화와 차문화 공간

차문화라고 할 때는 차를 마시는 행위와 관련한 사회적, 문화적 행태나 규범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차문화에 보다 광범한 개념이 포함되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사회 교육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다례나 다도교육, 차를 만드는 과정의 여러 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제다법, 차의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심지어 차의 성분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학적 접근마저도 차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차문화란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의 예절과 법도 등 문화적 요소,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다구(차실가구)나 다식 등의 문화 예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차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요소, 차를 만드는 방법과 차의 효능을 분석하는 등의 과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박과 이 2005).

## 2-3 한·중·일 차문화 공간 비교

한국의 차문화는 시대에 따라 지역별, 계층별로 여러 형태의 특성을 가진다. 궁궐과 사찰의 실내공간에서 또는 선비의 사랑방과 승려들의 공부방과 암자 등 공간의 구별을 특별히 두지 않아 다양한 차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 Fig.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다정(다원)을 만들고, 자연속의 일부로서의 차문화 공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불교와 유교가 차를 매개체로 학문과 선과 풍류를 실내·외의 차문화 공간에서 만끽하였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정약용의 다산초당과 초의의 일지암

(一枝庵)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친화적인 공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3. China.



Fig. 4. Korea.



Fig. 5. Japan.

일본의 차문화 공간은 주로 옥외보다는 옥내에서 이루어진다. 일본의 전통건축 중에서도 차실은 가장 일본 문화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에서 보듯이 선(禪)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의 차문화공간인 다실은 엄격하게 규정된 형식 속에 표현되어 있지만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과 현대를 잘 조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차문화공간은 본토와 대만의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차문화와 현대적인 차문화가 생활화되면서, 두 지역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특히, 공자의 유어예(游於藝)적인 생활방법을 삶의 최고의 덕목으로 삼은 중국은, 그 모습이 차문화 공간에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이와 현 2000). Fig. 3에서 보듯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지역의 고급상업시설과 공원에서 차문화가 일상생활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차를 즐기는 모습은, 중국도 우리의 과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입식과 좌식의 생활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동양 삼국의 차문화 특징을 한국은 다례(茶禮), 일본은 다도(茶道), 중국은 다예(茶藝)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의와 예술을 중요시 하고 궁극적으로는 도(道)와 접목되는 것이다. 즉 차문화공간은 예도예(禮道藝)를 실천하는 공간이다(현 2000). 따라서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 중국, 일본의 차문화 공간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이 2004). 다음으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한국 차문화공간 속의 차실가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Table 1. Comparison of tea cultural space in Korea, China and Japan

비교항목 \ 나라	Korea	China	Japan
차생활 분위기	풍류, 철학, 청담, 시서화, 가무, 자유, 자율, 가변	유어예(游於藝)	형식, 의례, 엄격, 체계
차문화공간	자율적, 가변적인 공간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실생활 그 자체	규격화된 공간과 정적인 색을 가진 공간
공통점	예도예를 공감하고 생태적인 공간		

### 3. 차실가구의 의미와 차문화 공간 속의 차실가구

#### 3-1 차실가구의 분류와 국내 차실가구 벤치마킹

한국의 차문화공간은 Fig. 6에서 처럼 크게 세 가지의 구성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차문화 행위를 할 수 있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그리고 행다(行茶)에 필요한 차도구나 차실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차실가구는 찻자리에서의 행다(行茶)에 필요한 소품 차도구, 차반, 찻상 등의 운반이 가능한 것과 차도구를 보관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장식장과 선반 그리고 찻자리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인테리어 소품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나아가 내·외부공간을 채우는 가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요소로써 그 영역을 확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6. Composition and element of tea cultural space.

우선 차실가구의 구체적인 개발에 앞서 차실가구의 전반적인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도구에 포함되는 일반화된 차실가구는 ‘상(床)’을 지칭하는데 크게 다판, 차탁, 찻상, 다반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외 Table2-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내를 장식하거나 각종 차도구들을 보관, 운반 할 수 있는 장식장, 장식대, 다구함, 찻잔받침대, 나무접시 그리고 찻자리 장식 소품(등잔받침대, 화분받침대)으로 나눌 수 있다.

Table2-1. Classification of tea table

종류	이미지 1	이미지 2
다판 차탁		
찻상		
다반		

전체적인 구성은 중국의 입식 문화와는 달리 좌식문화에 맞는 한국 전통목가구의 구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 중 차를 마실 때 차도구를 놓을 수 있는 찻상을 살펴보면 크게 다판, 찻상, 차탁, 차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판(茶板)은 장식이나 부착물이 없는 어느 정도 두께(약 20cm 미만)의 판(板)으로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거나 일정한 곳에 두고 사용하며, 높이가 낮아서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Table 2-2. Classification of various tea pieces

종류	이미지 1	이미지 2
장식장 장식대		
다구함		
찻잔받침		
나무접시 다식기		

찻상(茶床)은 소반의 기능과 같은 의미로 차를 나르는 반의 기능과, 차를 놓고 마시는 상의 기능을 통합하여 찻상이라 한다. 찻상은 행다를 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어야 한다. 찻상은 다기들이 도자기이기 때문에 가벼워야 하고, 그릇이 흘러내리지 않게 낮은 운두가 있어야 하며, 손으로 잡기 쉽게 제작되어야 한다. 좌식 차생활에 맞게 높이가 높지 않아서(약 12~15cm) 사용하기 편해야 하고, 두 팔로 들 수 있는 넓이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해야 좋은 찻상이라 하겠다. 찻상으로 많이 쓰는 형태는 사각반(四角盤), 연엽반(蓮葉盤), 원반(圓盤) 등이다. 차반(茶盤)은 음식이나 기물을 단순하

게 이동하는데 쓰는 것으로 쟁반과 같은 기능이다. 한 손이나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높이도 낮고(약 5cm 정도) 가벼워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해오는 반(槃)은 대부분 작은 발이 부착되어 있고 기물이 떨어지지 않게 전을 위로 세웠다(신 2005).

찾상 이외의 차실가구는 Table 2-2에서 살펴본듯이 이동식 찾자리를 위해 고안된 다구함이 있으며 다기를 보관하거나 장식용 해서 찾자리를 돋보이게 하는 다완장이나 다도구장처럼 장식장(대)이 있고 행다를 할 때 필요한 차잔받침과 접시 등의 인테리어 소품이 있다. 이처럼 차실가구들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차실가구들을 재발견하여 전통목가구의 한국 조형미가 발산하는 차실가구의 개발하면 한국만의 독창성을 지닌 차실가구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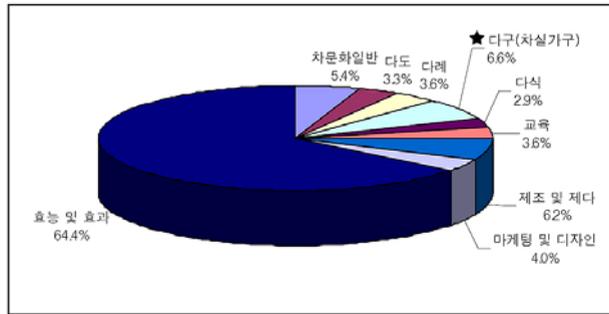


Fig. 7. Treatise on the tea culture.

Fig. 7은 차문화의 연구동향을 분야별로 발표한 석·박사 논문의 비율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차의 효능 및 효과, 다구, 제조 및 제다법, 차문화 일반, 교육, 마케팅 및 디자인, 다례, 다도, 다식 순으로 나타나지만(박과 이 2005) 차실 가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구 속에 차실가구가 포함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백분율에 비해 그 연구비중이 아주 미흡한 편이다.

Table 3. Tea culture educational institution

학교	학과	설립연도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전공	1993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생활예절·다도전공	2000
부산여자전문대학교	차문화복지과	2001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건강관리학과 차학과 전공	2002
동산불교대학	제다학과	2004
목포대학교	국제차문화학과	2004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예문화와 다도학전공	2004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2004
원광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 동양문화예다학전공	2005
동신대학교	차학과	2006
목포과학대학교	제다학과	2006
서원대학교	차학과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전통문화의 얼과 멋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 되고, 차문화도 특수 계층의 전유물에서 일반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대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시기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다도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1981년 부산여자전문대학의 부설 단 기 대학과정으로 공식화 되었고(안 2006) 이후 Table 3에서 보듯이 차를 마시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차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내 차 관련 전문교육도 개설이 되었으며 차문화가 행해지는 공간에서의 차실가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 차실가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할 뿐이다. 더군다나 우리 문화의 독창적인 멋을 가진 차실가구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3-2 한국의 미의식이 반영된 현대 차문화 공간 속의 차실가구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미의식이 문화에 스며들어 한국미의 표본이라 칭하는 조선 후기의 예술에서 극대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 후기 이전의 미의식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기층문화와 상층문화가 만나 섞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미의식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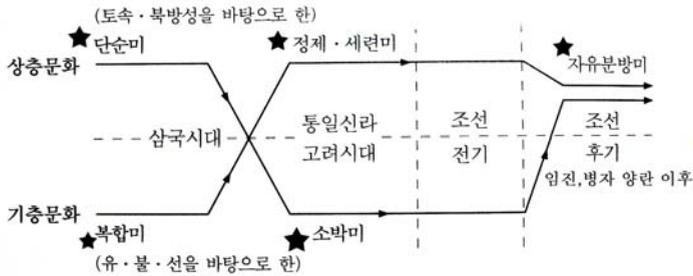


Fig. 8. Emotion of Korean.

한국 전통가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대 가구들이 담아내는 아름다움도 이 시기에 나타나서 전통가구의 표준이 되었는데(김과 안 1993) 그러한 관점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아름다움은 Fig.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단순미, 소박미, 복합미, 정제·세련미, 자유분방미로 나뉘어 좌식형과 입식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조형화하여 현대 차문화공간 속의 차실가구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4. Examples of tea cultural space



		
<b>개인 차실 공간</b>		
		
생활공간의 한 부분으로써 차실가구(신수길)	건축 공간의 구성요소로써 차실가구(박민철)	전통 재료와 소박함을 간직한 차실가구(박봉규)

Table 4,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조형화한 차문화공간과 차실가구의 실례를 살펴보면 현대 차문화공간 속의 차실가구는 전체와 개별적 요소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조화미, 인위적 처리를 최소화한 자연의 변형도 포용하는 자연미, 평범하면서도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소박미, 인위적인 기교를 절제하고 인공적인 형태나 장식을 최소화한 탈기교미, 고요한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겸허한 가운데 세련미가 넘치는 관조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가구에 한국의 미의식을 표현하려고 한 가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의 차생활 공간에는 하나의 가구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되어질 것은 단일한 기능이 아닌 복합적인 기능을 겸비한 가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인테리어의 요소로써 건축에 스며들 수 있는 가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 가변적인 구성으로 다양한 공간에 짜임새 있는 구조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Table 5. Examples of tea furniture with the tradition

	
문자조형 차탁(박정열,2008.茶樂)	전통문양 응용 차가구(부분,2007)

문선옥 등- 현대 차문화 공간을 위한 차실(茶室)가구 연구-한국의 조형미를 담은 차실가구 개발-



#### 4. 한국의 전통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담은 차실 가구 개발

##### 4-1 차실가구의 설계와 모델제작

차문화가 식생활에 있어 고급문화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디자인의 컨셉은 한국의 전통 부엌 가구의 찬탁(饌卓)에서 구조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디자인을 하고 그 속에 차상이 포함되는 일체형 가구를 구상하였다. (Table 6, 7, 8)

Table 6. Traditional Korean dish shelves



Table 7. Idea Ske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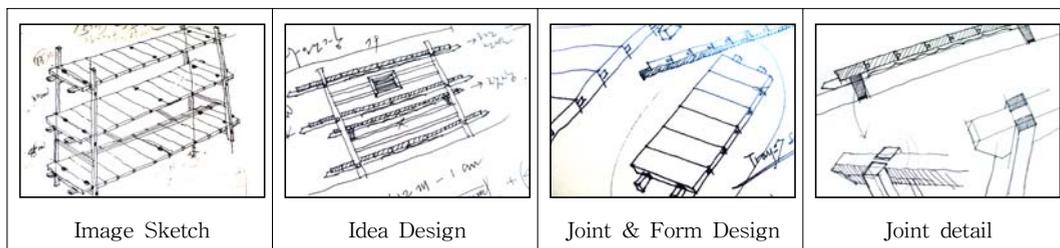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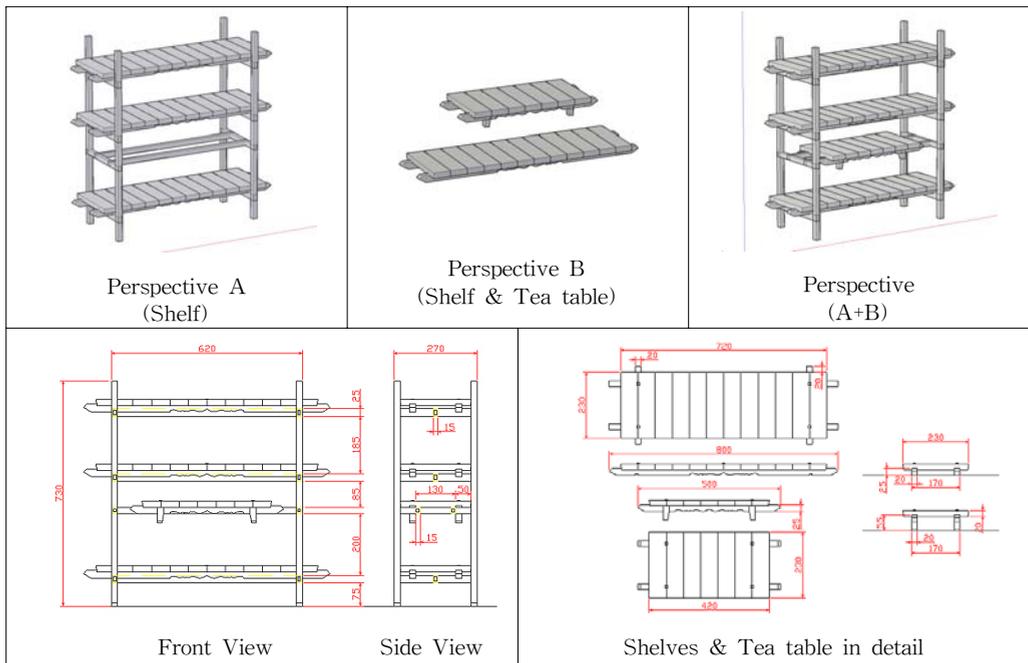


Table 8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거친 계획안을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를 이용하여 2차원과 3차원으로 도면화한 것인데 전반적인 형태 디자인은 앞서 언급한 전통목가구의 아름다운 중 평범하면서도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소박미, 인위적인 기교를 절제하고 인공적인 형태나 장식을 최소화한 탈기교미를 담아 수직과 수평선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였고 각 선반과 찻상의 풍혈에는 복(福)을 기원하는 전통문양인 박쥐문양을 조각하여 표현하였다.

Table 8. 2D & 3D drawing on CAD



4-2 가구제작 기법과 재료, 구조

재료는 재질이 굳고 단단하며 무늬가 좋아서 전통적으로 가구재, 화장재, 조각재로 두루 쓰이는 국내산 느티나무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색과 무늬를 장식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제작 기법과 구조는 장부축짜임으로 기둥과 각 부재를 결합하고 선반이 될 부분은 제혀쪽매로 판재를 만들고 반침목을 끼워 기둥과 결합했으며, 찻상도 제혀쪽매로 판재를 만든 후 반침목과 걸침턱짜임으로 결합하여 간단한 결합방법이지만 튼튼한 짜임새를 갖추었다(Table 9).

Table 9. Materials, forms & joints



또한 기능성을 강조하여 찻상을 사용할 때는 선반으로부터 들어내어 사용하고 찻자리를 정리할 때는 선반에 안착시킬 수 있게 디자인하였으며 선반의 측면에는 차도구를 걸 수 있는 걸이를 추가하여 장식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부여하였다(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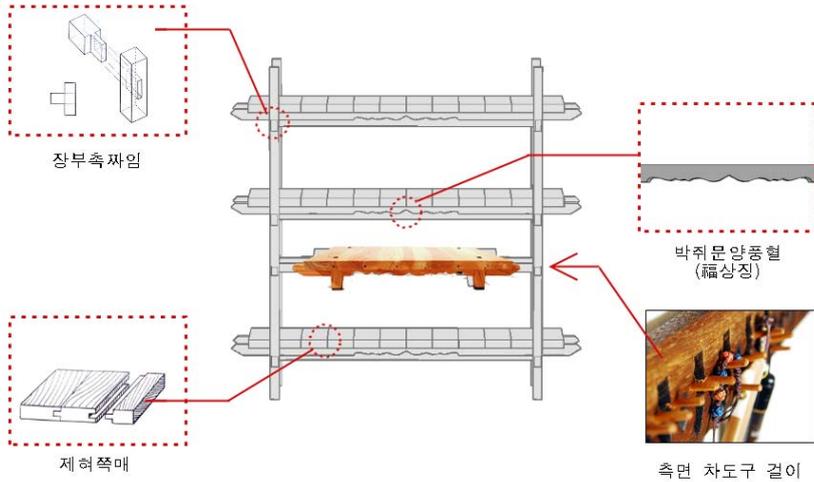


Fig. 9. Details of developed tea shelf and table.

Table 10에서는 개발한 작품을 실내 공간 속에 인입한 모습을 그래픽으로 표현하였다. 자연의 색과 무늬를 가진 원목의 사용과 수평·수직의 결합으로 구성된 작품은 현대의 공간에서 다른 가구들과 거리감을 좁혀줄 것이라 생각된다.

Table 10. The works in the living room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의 기원, 전통과 현대의 차문화공간 그리고 그 구성요소 중 하나인 차실가구를 살펴보았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차문화공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차실가구를 한국의 전통목가구의 아름다움에서 착안하여 한국의 조형미를 담은 차실가구의 개발하였다. 현대의 차실가

구는 찻자리에서의 행다(行茶)에 필요한 소품 차 도구, 차반, 찻상 등의 운반이 가능한 것과 차도구를 보관하거나 감상하기 위한 장식장과 선반 그리고 찻자리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인테리어 소품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실가구들을 재발견하여 전통목가구의 아름다움을 적용해서 차실가구를 개발하면 한국 가구의 정체성을 가진 차실가구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사례로 제시한 현대 차문화공간 속의 차실가구들과 차문화가 식생활의 고급문화로 발전해왔기에 한국의 전통목가구에 중 주방에 필수적인 찬탁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에서 착안한 차 도구 선반과 찻상을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하게 개발하면 우리 문화의 독창적인 멋을 가진 한국 가구에 대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세계가 로하스(LOHAS)를 외치며 자연친화적인 문화를 중요시하고 있는 지금 현대 차 문화 공간 속에 필요로 하는 차실가구의 다양성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다문화(Multiculture)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인에게 적합한 기능과 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차실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6. 참고문헌

- 김건우. 2006. 차문화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조성 연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3-86.
- 김원용, 안희준. 1993. 신판한국미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337.
- 박준식, 이순영. 2005.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본 한국 차문화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 35.
- 신수길. 2005. 茶道具(차생활의 모든 것). 술과학: 196-261.
- 안승협. 2006. 한국 차도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37.
- 윤병상. 2004. 다도고전. 연세대학교출판부: 5-7.
- 이일희. 2004. 생태적 관점에서 본 차문화공간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4.
- 이재근, 현영조. 2000. 한국 차문화 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9-10.
- 최준식. 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70-71.
- 현영조. 2000. 한국전통 차문화공간에 대한 사적 고찰. 한국차학회지. 제6권 3호: 79.